

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 6. 10.(월) 10:00

## 5 분 자 유 발 언

(KTX-이음 정차역 꼭 이뤄져야 합니다)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박재완 의원)

## - KTX-이음 정차역 꼭 이뤄져야 합니다 -

북구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소1동, 송정동 지역구의 무소속 박재완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저는 이 자리에서  
'KTX-이음, 반드시 북울산역에 유치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했고  
한 달 뒤에는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박천동 북구청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북울산역'과 '남창역' 두 곳에  
'KTX-이음 정차역'을 유치해 주십시오!

연일 언론에서는 'KTX-이음 정차역'이  
태화강역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2022년 국토교통부의 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KTX-이음' 부전역 연장 개통 계획 발표시  
'태화강역 정차'를 언급한 것에 근거한 추정일 뿐입니다.

남구의 태화강역은 울산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최근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각합니다.  
더 이상의 확장성이 없는 태화강역에  
'KTX-이음 정차역'이 들어선다면  
시민 불편만 가중될 것입니다.

이미 남구는 울산 시민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북구와 울주군은 많이 발전되었지만  
여전히 도농 복합도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구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절실합니다.

울산 북구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울주군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화학공업 분야 기업이 밀집해 있어  
서울, 부산 등 전국과의 철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북구는 중구와 동구에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7번 국도와 오토밸리로·이예로를 통해  
울산 어디로든 단시간 내 이동이 가능합니다.  
북울산역과 남창역 모두 추가 건설비용 없이  
‘KTX-이음’이 정차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준고속열차 ‘KTX-이음’의 운행 특성상  
울산광역시와 북울산역, 태화강역, 남창역  
세 곳 모두에 정차를 주장하면  
오히려 태화강역 한 곳만 선정될 가능성이 큼니다.  
‘역간 거리’가 심사시 중요 평가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북울산역과 남창역 간 25.9km의 역간거리는  
‘KTX-이음’의 원활한 운행에 적합한 반면,  
북울산역에서 태화강역 9.7km,  
태화강역에서 남창역 16.2km의 짧은 역간거리는  
준고속열차의 운행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태화강역이 정차역으로 확정되면

역간거리 문제로 북울산역과 남창역 두 곳 모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태화강역을 제외하고 북울산역과 남창역 두 곳에  
정차역을 유치하는 것이 북구와 울주군에게도,  
울산 전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울산역의 KTX-이음 정차역 유치가  
어차피 안 될 일이니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출직 의원의 책무입니다.

‘누워서 저절로 들어오는 떡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북구도 정차역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노력해야 합니다.

‘KTX-이음 정차역’은 북구 창평동과 울주군 온양읍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박천동 북구청장님, 울산 북구의회 의원님들,  
이순걸 울주군수님과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께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KTX-이음 정차역 공동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북구와 울주군의 발전은  
우리 모두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권, 지자체, 구민과 군민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KTX-이음 정차역 유치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박천동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북구의회도 구민을 위해,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